



금속캔 수급 동향

Supply and Demand of Metal Can

2007년 작년대비 1.79% 감소

지난해 제관업계 금속캔 판매실적이 2006년 대비 1.79% 감소한 56억9천4백만개로 집계됐다.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철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7억9천8백만개 판매량을 보인 결과 달리 2007년에는 1억4백만개 이상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음료관은 2006년 대비 1.78% 감소한 44억5천8백만개의 판매실적을 기록했고 통조림관은 3.35% 증가한 5억8,700만개, 분유관은 21.21% 감소한 2,600만개, 미술관(제약관 및 기타)은 57.14% 감소한 3백만개, 에어졸관(에어졸, 부탄)은 6.67% 감소한 4억3,400만개, 잠관(0.5~20l)은 0.53% 감소한 1억8,600만개를 기록했다.

먼저 2007년 증가세를 보인 음료관 중 알루미늄캔은 2006년 대비 14.84% 증가한 19억8,900만개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맥주관, 탄산관은 각 6.22%, 267.92% 증가했고 커피관은 61.37%,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관은 8.08% 감소했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스틸

캔은 2006년 대비 12.04% 감소한 24억6,900만개로 집계됐다. 2PCS 스틸캔은 12.46% 감소한 21억4,200만개를 기록했고 3PCS 스틸캔은 9.17% 감소한 3억2,700만개를 판매했다.

특히 2PCS 탄산관은 2006년 대비 65.12% 감소한 3억8백만개를 기록한 반면 커피관은 40.63% 증가한 6억2,300만개를 판매했다.

제관업계 동향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값 때문에 생산중단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국내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또한 국제 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원자재 파동이 가격 급등을 넘어 비싼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품귀현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의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석판 가격은 지난 2월 톤당 7만원이 올랐고 5월초 다시 17만원이 올랐다. 또한 신일본제철이 3·4분기 철판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이다.

식용류·장류 등의 용기로 가장 많이 쓰이는 두께 0.3mm 석판의 경우 가격이 지난해 말 톤당 97만8,000원에서 122만원까지 인상됐다.

[표 1] 2007년도 금속캔 판매실적비교(총괄)(내수, 수출 포함)

(수량 : 백만)

구분			2007	2006	2005	2004	증감(07/06년 대비)		
							수량	%	
금속 관	알루 미늄	2PCS	맥주관	785	739	765	655	46	6.22%
			탄산관	585	159	219	156	426	267.92%
			커피관	107	277	311	33	-170	-61.37%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512	557	473	221	-45	-8.08%
			계	1,989	1,732	1,768	1,065	257	14.84%
	스틸	2PCS	맥주관			1	103	0	
			탄산관	308	883	928	1,031	-575	-65.12%
			커피관	623	883	418	206	180	40.63%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1,142	1,121	1,134	1,231	90	8.03%
			소 계	2,142	2,447	2,481	2,571	-305	-12.46%
		3PCS	탄산관						
			커피관	62	66	112	652	-4	-6.06%
			주스, 스포츠 전통음료, 기타	265	294	401	757	-29	-9.86%
	소 계	327	360	513	1,409	-33	-9.17%		
계	2,469	2,807	2,994	3,980	-338	-12.04%			
합 계			4,458	4,539	4,762	5,045	-81	-1.78%	
통조 림관	농 산 물		147	100	111	126	47	47.00%	
	수 산 물		408	446	478	446	-38	-8.52%	
	축 산 물		32	21	18	17	11	52.38%	
	합 계		587	567	608	589	20	3.53%	
분유관	분 유		26	33	32	30	-7	-21.21%	
미술관	계약관 및 기타		3	7	6	7	-4	-57.14%	
에어졸	에어졸, 부탄		434	465	486	486	-31	-6.67%	
잡 관	0.5~20 l 관		186	187	190	198	-1	-0.53%	
총 계			5,694	5,798	6,084	6,355	-104	-1.79%	

※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자료 제공

이들은 특히 거래 관행상 석관을 전액 현금을 주고 사오고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관조합 관계자는 “현금 거래를 하다 보니 원자재가 인상 영향이 100% 직접 전달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그런데도 대부분의 수요처는 제일 큰 대기업이 올려주면 그 때 올려주겠다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속캔 등을 제조하는 제관업계는 한해 세번 이상 가격이 올라 경영압박에 시달린 2004년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올들어 원재료인 석관 가격이 2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올랐고 또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돼 납품가가 반드시 인상돼야 제관업계의 생존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